

#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 5월 8일은 古下 宋鎮禹선생님께서 誕生하신지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誕辰日에는 抗日獨立과 民主建國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신 先生님의 偉大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많은 인사들이 參集하여 追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報勳處長등 여러 貴賓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先生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19세에 日本으로 건너가 東京에서 留學中에 留學生 親睦會 총무직을 맡으시고 '學之光'이라는 잡지를 편집하신 일은 周知되어 있는 바입니다. 歸國하신 後 27세의 젊으신 나이에 中央學校 學監을 거쳐 校長에 就任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세 때는 中央學校를 中心으로 學生會를 조직하고 中央學校 宿直室에서 仁村 金性洙 선생, 機堂 玄相允 선생 등과 조국독립운동을 계획하여 마침내 3·1 독립운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先生님께서 펼치신 獨立運動은 다른 분들과는 달랐습니다. 物產獎勵運動, 文盲退治運動을 추진하셨는가 하면 民立大學 設立運動에 앞장서시기도 하셨습니다. 1925년 36세때 하와이에서 열렸던 汎太平洋民族會議에 參席하셔서 李承晩 博士를 만나셨을 때 亡命提議를 받으셨으나 拒絕하시고 國內에서 獨立運動을 主導하시기로 하셨던 일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몸소 屈辱과 絶望과 無知와 貧困속에서 헤매는 겨레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고난을 겨레와 함께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日帝의 壓迫에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결단과 자세는 단순한 愛國熱血 이상으로 불굴의 鬪志와 忍耐와 그리고 원대한 經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言論人으로서 先生님께서 겪으신 일들은 새삼 紹介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東亞日報의 총수로서 민족정신을 代辯·鼓吹하시는 동안 누차의 獄苦를 개의치 않고 가시 발길을 헤쳐 나가신 것은 선생님께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解放直前に 4차에 걸쳐 總督府로부터 政權引受交渉을 받았으나 拒絶하셨던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선생님의 희생적 투쟁은 대한민국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解放이 되자 衆望을 짊어진 채 선생님이 建國創業의 숭고한 업무의 중심에 서시게 된 것은 事理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민족진영을 통합한 韓國民主黨의 首席總務인 동시에 重刊된 東亞日報의 社長으로서 나라 세우기에 침식을 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風餐露宿하며 고생하신 海外亡命志士들의 還國迎接이나, 구름같이 모여드는 동지들과 함께 신탁통치반대를 논하면서 새로 건설할 나라의 틀을 설계하기에 해방의 기쁨을 느껴보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강인한 鬪志와 원대한 經世方略을 펴볼 기회를 미처 잡기도 전에 暴徒의 흉탄으로 그 고매한 일생을 마감하셨으니 온 국민이 國運의 비색함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先生님을 欽慕하는 人士들이 더욱 精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現象이라고 믿습니다. 先生님께서 教育家·言論人·獨立運動家·政治家로서 뿐만 아니라 文化人으로서 이 나라 이 民族에 寄與하신 바가 큰 까닭입니다. 지난 1997년에는 政府에서 先生님을 '12月の 文化人物'로 選定하여 여러 가지 記念行事가 舉行되었는데 先生님의 遺品展示는 지금도 世人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千年에 들어와서 先生님을 再照明하고자 하는 運動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現象이라고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先生님의 遺德과 經世哲學 그리고 先見之明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提示해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先生님께서 주신 敎訓을 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것 또한 當然한 現象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韓國政治學會는 東亞日報사와 공동주관으로 崇實大學校 韓景職紀念館에서 '解放政局 政治指導者들의 思想과 行動: 韓國政治 理念의 摸索' 이라는 주제로 學術發表會를 開催하고 先生님의 政治思想과 行動에 관하여 幅 넓은 討論이 展開된 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慶南大學校 심지연 교수가 '古下 宋鎮禹의 活動과 政治理念'이라는 題目으로 先生님의 業績을 再照明하였고 많은 參席者들이 열띤 討論

을 하여 時間가는 줄 몰랐던 일이 생각납니다.

한편에서는 先生님의 나라사랑 精神을 崇慕하고 繼承해 나가기 위해 홈페이지가 제작되는 중에 있으며 곧 完成될 단계에 있습니다.

근래에는 日本의 皇國史觀에 입각한 歷史教科書 歪曲 문제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日本이 過去의 侵略을 美化하고 소위 從軍慰安婦의 存在자체를 否認하는 등 歷史를 왜곡하고 그들의 섬나라 根性を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나라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日本사람들은 自身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先生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先生님 저희들에게 勇氣와 知慧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最近에는 先生님의 生涯와 思想 및 그 當時의 時代相을 연구하여 學位論文을 쓰려는 젊은 學者들의 關心이 커지고 問議가 많다는 사실도 報告해 올립니다.

先生님에 대한 欽慕의 情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며 先生님에 관한 研究熱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現實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先生님께서 生前에 것처럼 사랑하시던 이 나라가 더욱 正義롭고 富強하며 統一의 날이 빨리 와서 世界 平和에 크게 寄與하게 되기를 祝願하면서 追慕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